

김 태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관한 연구

-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과의
결속을 중심으로 -

2006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장 혜 연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관한 연구

-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과의
결속을 중심으로 -

김태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장혜연

인 준 서

장혜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중노년기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과의 결속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중노년기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과의 유대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결속관계를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의 5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인이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속도 척도,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우울척도(CES-D :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20, 30대 미혼 딸이 있는 중노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91명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일원변량분석(ANOVA), 적률상관관계, (Pearson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등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노년기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과의 결속도, 우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속도를 각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중노년기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의 결속도와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결속도를 5개의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접촉적 결속은 10.91(SD=3.11, 점수범위 4~20)을 나타냈으며, 애정적 결속은 19.33(SD=3.98, 점수범위 6~30)으로 중간값인

19.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능적 결속A는 12.73(SD=3.00, 점수범위 4~20)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결속B는 14.25(SD=3.74, 점수범위 5~25)로 중간값 14.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치적 결속은 15점 만점에 9.99(SD=2.49, 점수범위 3~15)로 부녀간의 가치관에 있어 일치감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전체 결속도를 보면, 68.21(SD=11.57, 점수범위 22~110)로, 중간값인 69.00에 못 미치는 점수를 나타냈다.

우울의 경우, 35.41(SD=7.94, 점수범위 15~60)로 중간값인 35.00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를 보면, 접촉적 결속은 연령이 50대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60대 이상일수록, 건강한 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애정적 결속은 건강한 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능적 결속A는 소득이 대체로 높아질 때 높게 나타났으나 100만원 미만 집단이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혼인관계일수록 건강한 수록 은퇴경험이 없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능적 결속B는 연령이 60대 이상일수록 은퇴경험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는 없으나 건강한 편일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치적 결속은 건강한 편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전체 결속도는 연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대일수록 낮고 60대 이상일수록, 건강한 편일수록, 은퇴경험이 없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우울을 보면 비혼인관계일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와 우울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속도의 경우, 기능적 결속A는 종교가 있을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기능적 결속B는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직업이 자영업·기능직이고 전문직일수록, 소득

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일치적 결속은 연령이 30세 이상일수록, 딸이 1명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넷째,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결속도, 건강, 혼인관계순으로 나타났다. 즉, 결속도가 낮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비혼인관계일 때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녀간의 결속이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했으며, 부녀간 좀 더 원활한 유대와 상호작용을 통해 앞으로 중노년기 아버지의 지지체계의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II. 이론적 배경	4
1. 중노년기 가족관계	4
1) 중노년기 부모자녀관계	4
2) 중노년기 부녀관계	6
2. 결속도	9
1) 결속도의 개념	9
2) 결속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13
3. 우울	18
1) 우울의 개념	18
2)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	20
I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24
1. 연구모형	24
2. 연구문제	25
3. 용어의 정의	26

IV. 연구방법	28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28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32
3. 자료의 분석방법	37
4. 연구의 제한점	38
V. 결과 및 해석	39
1. 결속도 및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	39
2.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와 우울의 차이	41
1)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와 우울의 차이	41
2)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와 우울의 차이	46
3. 배경변인, 결속도가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50
VI. 결론 및 논의	5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각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31
<표 2> 중노년기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	35
<표 3>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일반적 배경	36
<표 4> 결속도,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	40
<표 5>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 우울의 차이	44
<표 6>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 우울의 차이	48
<표 7> 배경변인, 결속도가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52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24
-------------------	----

I. 서론

1. 문제 제기

중노년기는 물질적, 정신적 전환이 요구되는 인생의 전환기로(이인정·최해경, 2003), 이 시기는 전생애 발달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내적 경험과 가치관을 재평가하게 된다. 즉 이 시기는 인생의 긍정적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으며(Erickson, 1963; Erickson, & Kivnick, 1986), 개개인의 정신,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중노년기는 자신에게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시기이며, 현재 평균수명이 80세에 가깝게 늘어나면서 가족생활주기의 관점에서 중노년기가 과거에 비해 필연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연령이나 생활사건등의 적절한 규범을 토대로 형성되어온 가족생활주기는 최근에 이르러 변화와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중노년기에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노년기 제반 가족관계 특성을 규명하여 추후 연장된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끔 하는 학문적 모색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인생주기 관점에서 볼 때 중노년기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와 문제를 안고 있는 시기로서 노화를 경험하게 되며 부모역할의 감소와 함께 자녀의 출가와 은퇴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중노년기의 특성과 더불어, 중노년기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의존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자 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것이다(김재은, 1978).

중노년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들은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과 입시의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긴장하고 지쳐있으며, 그 이후 자녀의 취업, 결혼 등으로 인해 상실감과 실망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주는 스트레스가 우울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우울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들 수 있다. 러프 등(Ruff et al., 1990)은 21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복지감은 딸의 적응, 아들의 성취와 긍정적 관련이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망은 행복, 성공적 교육, 직업에서의 성공, 행복한 가정생활, 개인적 성취, 성숙한 인간, 건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자녀는 중노년기 부모에게 큰 의미를 지니며 또한 성인자녀의 경우 부모로서의 성패에 강력한 지표로 작용하여, 현재의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중노년기에 이른 자신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성인자녀의 상황은 중노년기 부모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가족의 기능에서 정서적 가치가 중요해진 지금 남아선호사상 등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예전에 비해 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시점에서 딸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는 미혼의 딸이 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미혼 딸과의 결속이 아버지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논문은 아버지의 우울에 대한 딸의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결론적으로, 중노년기 남성이 느끼는 부정적 정서상태인 우울감이 미혼 딸과의 결속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것은 가족 내의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중노년기 남성의 우울에 대한 가족 내 관련요인을 알아보는 것에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중노년기는 시기적으로 쉽게 침체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우울과 관련지을 수 있다. 중노년기 시기의 남성들은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으로 전반적으로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Jarvik, 1976). 그리하여 이들은 불면증, 체중감소, 감정적 무감각, 강박관념, 증오심 등의 구체적 우울증세를 나타내기도 한다.

반면, 일과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게 되면서 가족과의 시간을 점차 갖게 되고 이후 은퇴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시기의 가족관계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은 배우자의 영향만을 조명했으나, 자녀의 역할과 영향 및 지지 역시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노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자녀가 청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부모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성장으로 인해 중노년기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감을 갖고 의존을 요구하는 시기로 조금씩 들어서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기의 특성을 보다 폭넓게 규명하기 위해 중노년기 부모와 이해, 공감, 친밀도에 있어 아들보다 더 높다고 나타난 딸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노년기 아버지가 지각한 딸과의 결속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녀관계의 특성을 규명하는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바람직한 부녀관계 형성, 유지 및 중노년기 시기의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노년기 가족관계

1) 중노년기 부모자녀관계

중노년기는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자신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되돌아보며 심리적, 사회적으로 잠재적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타당성과 후회와 더불어 정체성의 위기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중노년기의 전환은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탐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새로운 인생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인생의 구조를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Levinson, 1978 ; 유희옥, 2004).

발달주기적인 관점에서 중노년기의 가족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부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나서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웠고 그들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만족감에서 새삼 진실한 동반의식을 갖게 된다. 더욱 서로에의 보호의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녀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녀 교육에 따르는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녀가 새로운 환경으로 인해 불안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노년기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직업을 준비하고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가 이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제를 시작하므로 올바른 이성교제를 통하여 현명하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신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결혼 후에는 자녀의 배우자 및 손자녀와의 새로운 역할관계로 인해 이전 단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부모 역할이 요구되기도 한다(김명자, 1998).

이렇게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가는 변화의 시기라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지지는 않는다. 즉 자녀양육으로 인한 재정적인 지출이 줄어들고 동시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 부부간의 응집력과 애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독립한 자녀에 대해 만족해하는 부모로서의 성취감도 맛볼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Housenecht & Macke, 1981). 또한, 은퇴한 부모와 독립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동거 모형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등 중노년기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에 대한 계속되는 열정, 만혼 등의 추세로 인해 자녀들의 독립이 지연되면서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모자녀 관계가 비독립적이고 종속적이어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심리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다(정옥분, 2001).

성인발달과 세대간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론가들은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자녀의 연령을 들고 있는데 성인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자녀간 갈등이 감소하고 친밀함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녀가 성숙해지면서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차이점을 감소시켜 그들 간의 갈등의 여지를 점차 없애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Bengtson(1979)은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성향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Blenkner(1965)는 부모와의 동일시는 효의 성숙을 발전시키는 과정의 일부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Suitor, Keeton, & Robinson, 1995, 재인용).

또한, 성인자녀는 부모로서의 성패에 강력한 지표로 작용하여, 현재의 성

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평가는 중년기에 이른 자신에 대한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성인 자녀의 상황은 중년기 부모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김명자, 1998).

즉, 중노년기의 부모자녀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서로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기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살펴 시기적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중노년기 부녀관계

가족의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녀양육에 있어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과정에서 행해져야 하는 부모의 역할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유한다기보다는 어머니에게 역할을 전담시키려 하고,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의 생계유지를 위해 도구적 역할(instrument role)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Parsons, 1995).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아버지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관찰한 몇몇 연구들은 아버지도 자녀에게 양육적 행동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Kotelchuck, 1972; Parke, O'Leary, & West, 1972). 그 이후 자녀양육에서 등한시 되어왔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또 다른 형태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Michael E. Lamb(1978)과 같은 학자는 아버지 역할에 관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서로 독립적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에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점차로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를 돌보는 일에 아버지외의 다른 가족원의 도움을 얻기가 힘들어졌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 관념이 도전을 받게 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심리적 발달 측면에 비추어 살펴볼 때, 아버지가 딸에게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응임, 1996).

딸이 아동기일 경우는 부모의 양육적 측면이 강하지만 특히 딸이 성년이 되는 중노년기의 부모시기는 자녀에게 의존을 요구하는 시기로 특히 아버지에게는 사회적, 심리적 변화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에 대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중노년기 아버지와 딸 간의 관계에 대한 일부 문헌들을 보면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가치관 불일치 등으로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조소연(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와 미혼 딸의 가족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노년기의 아버지들은 딸에게 전통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딸들의 독립, 자기 과신에 당혹스러워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 대다수가 딸들이 조용히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집에서 아이와 남편을 돌보기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대를 잇는 과정이며, 상당수의 아버지들이 그런 딸들을 자랑스러워 한다. 때때로 딸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결심하고 더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딸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이수영, 2005). 그러나, 자녀의 성이 세대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보다 딸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친밀감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Rossi & Rossi, 1990; 조윤주,

2002). 이러한 결과는 중노년기 아버지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부녀간 결속관계는 중요하며,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에게 주어진 전통적 효의식과 부양의식, 가부장적 가치관 등이 아들과는 다른 역할과 표현을 하게 한다. 이것으로 인해 부모는 딸에게서 아들과는 다른 효, 부양의식을 기대하게 된다. 김지영·최상진(2003)의 선행연구에서 보면 남녀의 효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답을 보면, 아들의 효도에 비해, 딸의 효도는 정서적, 정신적 효도에 치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가 기대하는 딸의 효도를 보면, 마음과 감정적 이해 등으로 역시 정서적인 유대관계 등 2차적 부양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은경(2000)의 연구에서는 아들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딸은 노부모 부양에 있어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인자녀간의 성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성역할 사회화의 관점과 딸, 아들간의 부양행위의 패턴의 차이 그리고 부양측정 도구들을 성정형화된 활동들만들 포함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김은경, 2000). 그리고 주소영(1994)의 연구에서, 친밀도에서 딸이 아들보다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부녀관계의 특징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인식한 미혼 딸 간의 결속이 부녀관계에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결속도

1) 결속도의 개념

결속도라는 개념은 Durkheim의 사회이론에서 유래되어 역사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조직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조병은, 1990).

결속력은 몇몇 연구에서는 응집력, 응결력 등으로도 사용되나 이 두 용어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결속은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결합함, 또는 한 덩어리로 뭉침으로 되어 있으며, 응집은 유사한 요소로 된 집합체의 각 부분이 서로 모이려고 하는 성질로 정의된다. 또한 결속력은 관심, 목표, 규범이 일치된 집단이 산출해내는 융화감이며, 응집성은 집단의 성원이 공동의 행동을 하고 서로 역할을 이해하며 그 역할에 따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성질로서 응집력(cohesion)은 심리학적인 측면의 용어로, 결속력(solidarity)은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최정혜, 1992).

가족연구와 관련지어 결속의 개념화 연구를 보면, Olson과 그의 동료들(1976)은 가족결속력을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심리적 유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결속도의 개념은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의 유형도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가족구성원간의 애정적 결속의 정도, 가치목표에 대한 일치, 활동과 과제의 분담, 가족성원의 자율성을 위한 격려와 주어진 환경 내에서의 독자성을 포함한다(최정혜, 1992; 김태현, 1996).

Hess와 Wring(1978)에 의하면 결속력은 사회화의 여러 양상 즉, 도덕적 및 종교적 가정교육, 역할모델, 기대와 학습 및 가치의 일치를 낳은 정보의

상호적 흐름 등에 의해서 향상되며 특히 두 세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즉 참된 보살핌과 보상이 중요하고 그 원동력은 애정이라 하였다.

Bengston과 그의 동료들(1982)은 가족결속이란 부모와 자녀가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다각적이고 복합적이며, 때로는 상반된 방식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가족결속과 관련된 차원으로서 친밀한 관계, 애정, 가치관 일치, 교환 혹은 기능적 보조, 규범, 자식의 책임감 그리고 구조 혹은 상호작용과 지지를 위한 기회를 들고 있다. 그는 미국의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가족결속도의 틀을 6가지 영역의 결속도로 ① 구조적 결속, ② 접촉적 결속, ③ 일치적 결속, ④ 기능적 결속, ⑤ 애정적 결속, ⑥ 규범적 결속을 포함하였다.

최정혜(1992)는 가족결속도란 가족구성원간의 특별한 유대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적인 상호의존성, 상호부조, 가치와 목표에 대한 유사성 등과 같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가족결속력의 영역으로 구조적 결속, 접촉적 결속, 일치적 결속, 기능적 결속, 애정적 결속, 규범적 결속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을 통해 결속도를 알아보려 한다. 본 논문에서 위의 두 가지 결속을 제외한 것은 구조적 결속의 경우, 한국사회 특성상 결혼 전에는 대부분 부모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통해 결속을 알아보는 구조적 결속은 실효성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범적 결속은 '효'에 대한 전통적 윤리규범이 강한 우리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할 때 규범 자체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최정혜, 1992)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년세대와 청소년세대의 부양 및 효의식에서 세대간 근접성을 보여줬기에(조소연, 2001)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선행연구(김은주, 1994; 김효정, 1995; 김유경, 2000)를 참고하여 기능적 결속을 도움주는 것과 도움받는 것으로 이분화하여 본 연구의 척도를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도움주기), 기능적 결속B(도움받기), 일치적 결속의 5영역으로 정리하였다.

① 접촉적 결속

접촉적 결속은 중노년기 아버지-미혼 딸간의 일상적인 만남, 의례적인 가족모임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과 전화, 편지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을 포함하는 것으로, 측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관계의 객관적 속성을 가진다.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소외문제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핵가족화되어 가는 생활 속에서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자녀와의 외식, 영화구경, 낚시, 여행 등의 시간을 함께 가지며, 명절, 제사, 생일 등의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잦은 접촉과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② 애정적 결속

애정적 결속은 중노년기 아버지-미혼 딸간의 신뢰, 존경, 친밀감, 사랑, 만족감, 개인적 문제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정도 등 주관적인 것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느끼는 따뜻한 감정, 가까움의 정도를 말한다.

Shannas(1973)는 노부모-성인자녀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의무적인 관계에서 자발적인 관계로 바뀌어 가는 경향이라고 볼 때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호존중하고, 상호신뢰하며,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것이며, 순수한 애정에 토대를 두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즉 자아존중감과 가치감이 충족되는 새로운 부모-자녀관계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Hess & Wring, 1978)고 하여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있어서는 구조적·규범적 결속보다는 정서적·일치적 결속이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Bedford(1992)는 어릴적 부모의 편애가 결혼 이후 성인자녀-노부모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여 자라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성인자녀일수록 그들 부모와의 정서적 결속이 약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결속은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어느 순간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 어릴 때 형성된 관계와 패턴이 함께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다.

③ 기능적 결속A(도움주기)

기능적 결속A는 중노년기 아버지가 미혼 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교환과 재정적 원조 등의 정도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중노년기 아버지가 미혼 딸을 도와주는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도움이나, 집안일, 식사준비가 있으며 선물, 용돈 외에 규모가 큰 재정적 도움을 주고, 특히 인생문제가 가족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④ 기능적 결속B(도움받기)

기능적 결속B는 중노년기 아버지가 미혼 딸에게서 제공받는 경제적 서비스, 재정적 원조 등을 말한다.

미혼 딸이 중노년기 아버지에게 도움을 드리는 경우에는 중노년기 아버지가 아플 때 도움을 드리고, 집안일을 도와 드리고, 생활비를 대거나 용돈, 선물을 드리고 관광여행을 보내드리는 등의 일을 포함한다.

Cheal(1983)은 기능적 결속에 있어서 성인자녀가 노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

며, 내용면에서도 노부모는 자녀를 가능한한 모든 측면에서 도와주는 반면 자녀쪽에서는 노부모의 건강이 나쁘거나 의존적일 때만 도와준다고 하였다.

⑤ 일치적 결속

일치적 결속은 정치적 이슈, 일반적인 가치관 신념, 가족외적 주제에 있어서 중노년기 아버지와 미혼 딸 사이의 유사성이나 일치의 정도를 나타낸다.

Atkinson(1986)등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살면 보다 많은 접촉을 할 수 있으므로 세대간 결속에 영향을 주고, 부모와 자녀가 같은 문화권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가치관이나 기대 등이 같을 것이므로 노부모와 성인남녀가 모두 미국태생이라면 이것이 일치적 결속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다른 가치관, 즉 경쟁보다는 협동, 지위하락의 수용과 같은 가치관이 필요하며 만일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이러한 변화된 규범을 수용한다면 일치적 결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중노년기 아버지와 미혼 딸 사이에 일치적 결속도가 높은 경우에는 인생에 대한 생각이 서로 비슷하고,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미혼 딸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도 비슷하여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의견 차이가 적어 아버지와 미혼 딸 사이에 갈등이 적게 되므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2) 결속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① 중노년기 아버지 관련변인에 따른 결속도

결속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결속도에 관계되는 배경변인으로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혼인관계, 건강, 종교, 은퇴경험 등이 있다.

연령에 따른 결속도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최정혜(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체결속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김유경(2000)의 연구결과는 연령과 결속이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서병숙·신호식(1992)과 김은주(1994)는 연령과 결속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이 자녀와의 결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상태, 건강 및 사회적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속의 하위영역을 보면, 도움받기 영역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로부터 도움을 요구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자녀와 동거시 연령이 낮은 요인이 정서적 교류, 경제적 교류, 서비스적 교류가 높게 나타난 장선주·서병숙(1991)의 결과도 있었다.

학력은 결속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전체 결속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정혜(1992)는 노인의 학력은 전체결속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으로 살펴보면 도시노인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속이 높다고 하였다. 결속의 하위영역을 보면 학력이 높은 노인들이 정서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가 높았으며 자녀의 유대관계도 교육정도와 관계가 있었다. 주소영(1994)의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이 자녀와의 공감도 영역에서 유의한 관계임을 보여 자녀가 아버지의 생각과 견해를 이해하는데 학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반영하고 있다.

직업은 직업유무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결속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노인이 직업을 갖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였다. 김유경(2000)은 취업한 경우일 때 유대관계가 높다고 설명했다. 주소영(1994)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자녀와의 친밀도 및 애정적 유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다.

경제상태는 결속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결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성규탁(1990)은 용돈이 적은 노인들의 지원망이

용돈이 많은 노인들의 것보다 더 크고 더 친밀하고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더 자주 접촉한다고 하였다. 결속의 하위영역을 보면 장선주·서병숙(1991)은 소득이 높은 중상류계층의 노인이 소득이 적은 노인보다 자녀와 경제적인 교류를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노인의 결혼상태는 결속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성인자녀와 더 높은 결속을 보였다. 결속의 하위영역에서 애정적 결속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더 높았다. 김은주(1994)는 배우자 유무가 성인자녀와의 전체 결속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와 더 자주 접촉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더 자주 접촉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자녀와 더 유사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유경(2000)은 결속도에 배우자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노인의 건강은 결속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최혜경(1985)의 연구결과는 건강이 좋을수록 높은 결속을 보였다. 그러나 최정혜(1992)는 건강에 따른 결속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결속의 하위영역에서 보면, 남자노인의 경우는 건강할수록 접촉적 결속, 도움주기, 일치적 결속, 애정적 결속이 높았지만 여자노인의 경우는 건강할수록 접촉적 결속에서만 높은 결속을 보였다.

종교에 따른 결속에 대해 여러 연구를 보면(서병숙·신효식, 1982; 김은주, 1994) 종교유무는 결속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결속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최정혜(1992)의 연구결과에서 종교유무는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에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은퇴경험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결속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은퇴를 경험한 이후 가족지지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 Elwell & Maltbie-Crannell(1981)은 은퇴로 인해 사

회적 관계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의무관계가 없는 친구관계망이 감소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족지지망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관련변인으로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혼인관계, 건강, 종교, 은퇴경험을 설정하였다.

②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 관련변인에 따른 결속도

결속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본 논문에서 부합하는 결속도에 관계되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에 관련한 배경변인을 찾을 수가 없어 자녀변인으로 대체했으며 이것에 관련한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형제관계(자녀수, 출생순위), 종교 등이 있다.

자녀의 연령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명자·손서희(2005)는 연령이 낮을수록 접촉빈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전길양(1993)은 연령이 적을수록 모녀간의 상호작용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자녀의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노부모에게 물질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즉 자녀가 고소득자일수록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드린다는 것이다. 딸과 노모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딸의 경제상태에 따른 접촉빈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유경, 2000), 상호작용의 세 하위영역 중 친밀감, 성인딸이 노모에게 미치는 원조영역에서는 유의하였다.

자녀의 소득은 이금남(2001)의 연구에서 모녀간의 친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소득이 대체로 낮을수록 친밀감이 낮았으며 가장 높은 소득집단에서 친밀감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자원을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민무숙, 1995; 이신숙·서병숙, 1993, 이윤정, 1994; 김명자·손서희, 2005).

자녀수는 김유경(2000)의 연구에서는 세대간의 유대관계에 자녀수가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출생순위에 대해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모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장남은 부모부양의 주 부양자로 궁극적인 책임을 맡아왔다. 이런 맥락에서 자녀의 성과 출생순위에 따라 노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결속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은(1990)의 연구 결과 장남과의 결속도는 다른 아들과 딸의 결속도보다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의 출생순위를 보면 딸의 경우, 첫째는 예로부터 '살림밑천'이나 '고명딸'로 불리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손아래 동생들에 대한 책임도 남달라 가정관리의 책임을 맡곤 하였으므로 첫째의 위치는 타 동생들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이신숙, 서병숙, 1994; 김명자·손서희, 2005). Uhlenberg와 그의 동료(1990)는 가족크기가 클수록 노모와 성인자녀와의 접촉이 높으며 가족크기는 부모와 자녀관계의 질의 영향변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명자·김일명(1989)은 여대생의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교를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부모-자녀의 세대간 가치관의 일치감 여부에 종교가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모자녀간의 결속관계에서도 종교가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전길양(1993)은 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상호작용요인(노모가 성인 딸 원조, 성인딸이 노모원조, 접촉, 친밀감)에서, 상호작용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딸의 연령, 학력, 동거형태로 설명했다. 즉, 딸의 연령이 적을수록, 딸의 학력이 높을수록, 동거형태가 딸과 함께 사는 경우일 때 가장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딸의 영향요인은 노모와 마찬가지로 딸이 가진 자

원과 구조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 관련변인으로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형제관계(자녀수, 출생순위), 종교를 설정하였다.

3. 우울

1) 우울의 개념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또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즉 어느 정도의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놀라움, 즐거움 등 이러한 정서상태가 비정상적이고 부적응 상태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울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일반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의 특성은 슬픈 감정이 무척 심하고 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활동 수준이 저하되고 비관적인 생각이 팽배하여 결국에는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며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어둡게 보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Preiffer, 1977; 황수섭, 1999).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범주로 분류되는데 일차적 우울(primary depression) 즉 내인성인 것과, 반응적 혹은 외인성으로 불리는 이차적 우울(secondary depression)이 있다. 일차적 우울은 개인 내부의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분명하지 않은 신체 내부적인 과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울증이다. 내인성 우울증은 어떤 외부적 사건에 반응하여 일어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주기를 이루어 반복되며 양극

(bipolar)을 이루거나 단일극(unipolar)을 이루어 나타난다. 한편 이차적 우울은 가장 흔한 형태로서 전체 우울증에서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반응성 우울증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기분의 장애라기보다 어떤 외부적 사건에 대한 반응이 심화되어 일어나는 우울증을 말하는 것이다(성은숙, 2003). 우울을 일으키는 외부적 사건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가족과의 이별, 경제적 파탄,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등의 이별이나 갈등, 부모나 형제 등 친척 혹은 이웃이나 친구 등과의 심각한 다툼, 결혼 및 직업에서의 실패, 자녀와의 갈등 등과 같은 개인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다. 두 번째는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소한 사건들이다. 세 번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원인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지속적 상태, 소속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친구의 부족, 경제적 궁핍 등 긍정적인 환경자극이 결여된 상황을 들 수 있다(권석만, 1996; 신수영, 2001).

중년기는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노화, 그리고 직장에서의 위치의 변화 등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역할에서의 도전과 변화들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을 요하는 변화를 겪고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이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한경혜·송지은, 2001). 이러한 시기적 변화로 인한 우울감에 대한 대처는 개인의 적극적인 성향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즉, 중년의 전환기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대면하느냐 아니면 부정하고 억압하느냐에 따라 우울을 느끼는 정도와 그 우울에 대처하는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이진숙, 2002).

Birren & Schale(1990)는 노년기에는 다른 어떤 연령집단보다 이차적 우울이 훨씬 더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이영자, 1998).

노년기에는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생활사건들로 인하여 우울증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노인의 우울은 신체적 질병과 상관이 높고 은

되, 사별, 대인적 고민, 경제적 결핍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노화에 따른 신체적, 사회적 상실이 증가하므로 노년기에 어느 정도의 우울증이 생기는 것을 불가피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김태현, 1999).

즉, 중노년기는 시기적 특성상 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로 인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고 이것으로 인해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기의 시기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노년기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우울감을 미혼 딸과의 관계를 통해 완화요인을 찾도록 한다.

2)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

① 우울과 결속의 관계

최정혜(1992)는 가족의 결속력은 스트레스 대처능력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하고 있다. 즉 결속력이 높은 가족은 결속력이 낮아서 경직되고 분산된 가족에 비해 스트레스 사건을 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기에 처하면 가족원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데 만약 결속력이 약한 가족이라면 서로 소원한 상태이고 경직되어 있어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간의 결속관계가 우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병숙·신효식(1994)은 노년기의 우울 경향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가족 간의 결속감이 우울정도를 낮춘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높은 접촉의 양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세대간 접촉량이 많을수록 노인의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의 객관적 결속(공동활동, 방문)이 적을수록 우울이 증가하였고 주관적 결속(애정, 신뢰)이 클수록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우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Markides & Krause, 1985), 서병숙·신효식(1994)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결속이 높을수록 우울한 기분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부모-성인자녀간에 가치가 유사할 때 애정과 기능적 결속이 증가되는 데 애정적 결속은 우울을 감소시키지만 기능적 결속은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Lawrence, Bennett & Markides, 1992).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감에 대한 완화요인으로서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과의 결속을 보고자 한다.

② 아버지 배경변인에 따른 우울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우울에 관계되는 배경변인으로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혼인관계, 건강, 종교, 은퇴경험 등이 있다.

연령이 높음에 따라 대체로 우울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진숙(2002)은 연령이 우울과 유의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준희(2004)는 중년기위기감에 연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윤민(2002)의 연구결과는 연령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내었다.

학력에 따른 우울정도를 보면 Gallo(1994)는 우울증상의 전반적인 차이는 교육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며 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김태현, 1999; 송숙자, 2002; 허준수·유수현, 2002)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김윤민(2002), Loughlin(2004)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용방법이 많고 신뢰성이 있는 사회적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 복지 상태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김명자, 1989; 신기영, 1991)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소득에 따른 우울정도를 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송대현·박한기, 1992).

혼인관계에 따른 우울정도의 영향을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보다 더 낮은 우울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수·윤숙례(1994)는 부부집단에 비해 독신집단이 더욱 건강상 불편을 느끼며, 더욱 빈번한 우울증과 외로움에 빠지고 더욱 자녀에게 의존하고픈 심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은 우울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Quinn(1983)은 노부모의 심리적 복지의 가장 큰 변인을 건강으로 보았으며 Husaini(1991)도 남녀 노인 모두에게 만성적 질병은 우울의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태현(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할수록 우울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우울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낮은 우울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생활이 노인의 심리적 적응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의 유무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다.

취업상태에 따른 우울을 살펴보면 Gallo(1994)는 우울증상의 전반적인 차이의 원인은 취업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종범·정성덕(1985)은 직업이 있는 노인이 무직인 노인보다 더 우울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비취업상태인 은퇴는 은퇴한 후의 기간에 따라서도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데, 은퇴기간이 긴 노인은 그 기간이 짧은 노인보다 더 우울한 영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은퇴라는 사건자체보다는 은퇴로 인한 수입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에게 은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hatfield, W. F, 1977; Kivett V. R, 1985).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중노년기 아버지의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건강, 혼인관계, 종교, 은퇴경험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중

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③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 배경변인에 따른 우울

자녀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충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경제적, 심리적 및 시간적, 육체적 노동부담을 수반하며, 동시에 부부간의 상호교류를 감소시켜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후자(부정적 효과)가 부모로서의 충족감을 능가함을 입증하고 있다(Glenn & Mclanahan, 1982; Lavee et al, 1996; White, Booth, & Edwards, 1986).

이길자(1991)와 이여봉(1998)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희, 1999). 이것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자녀에게 행하는 부모역할이 융통성있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김현덕(1994)은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와 상관관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한국, 말레이시아, 피지, 필리핀의 노인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자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은 한국노인들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Ferraro & Su, 1999; 김은경, 2002). 이것을 통해 자녀의 재정적인 부분이 노인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부모의 우울에 관한 자녀관련 배경변인에 대해서 선행연구는 직접적으로 찾기가 어려워 자녀변인이 부모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체로 가족, 직업 등의 주변환경 및 배우자의 영향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자녀는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의 일반적 특성도 추가하여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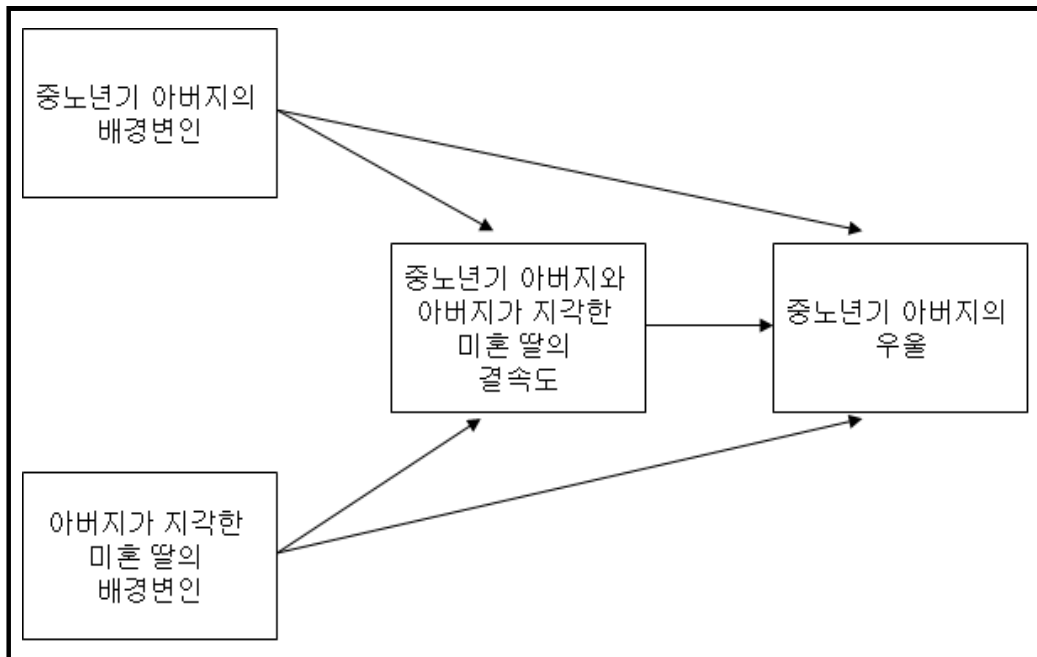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의 연령, 학력, 직

업, 소득, 형제관계(자녀수, 출생순위), 종교 등을 중심으로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중노년기 아버지와 미혼 딸의 결속관계가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문제

- < 연구문제 1 >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과의 결속도,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 연구문제 2 >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라 결속도와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 < 연구문제 3 >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배경변인에 따라 결속도와 우울은 차이가 있는가?
- < 연구문제 4 > 배경변인, 결속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1) 중노년기

: 중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역할 변화와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로 인해 중노년기는 스트레스, 위기감 및 상실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역할모델 및 지지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40대, 50대, 60대의 연령대를 중노년기로 정의하고 있다.

2) 결속도

: 본 연구에서는 결속도가 가족구성원간의 유대관계를 의미하며 친밀한 감정과 일치하는 규범, 가치관을 바탕으로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결속을 살피기 위해 결속도를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도움주기), 기능적 결속B(도움받기), 일치적 결속으로 설정하였다.

① 접촉적 결속

: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간의 접촉의 양이나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남과 여가 등을 함께하는 것과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② 애정적 결속

: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간의 주관적 유대관계로 현재 긍정적으로 느끼는 따뜻한 감정, 가까움의 정도를 말한다.

③ 기능적 결속A(도움주기)

: 중노년기 아버지가 미혼 딸에게 제공하는 신체적, 서비스와 재정적 원조를 말한다.

④ 기능적 결속B(도움받기)

: 중노년기 아버지가 미혼 딸에게 받는 신체적, 서비스와 재정적 원조를 말한다.

⑤ 일치적 결속

: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신념에 있어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간의 유사성이나 일치의 정도를 나타낸다.

3) 우울

: 본 논문은 중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증상과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울적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서적 감정인 우울감을 우울로 정의하고 있다. 중노년기 아버지의 전반적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척도를 사용하였다.

IV.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1)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조사대상자는 미혼의 딸을 가진 중노년기 아버지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결혼관계여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상태, 종교, 은퇴경험, 은퇴시 소득마련여부, 은퇴전 직업에 관한 문항을 각각 구성하였다. 또한 미혼 딸에 대한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 소득, 형제관계(아들, 딸의 수), 출생순위, 종교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2) 결속도

결속도 척도는 Bengtson and Schrader(1982)의 가족결속도 개념들을 토대로 조병은(1988), 최정혜(1992), 김은정(1994)의 척도를 사용하여 본 논문의 대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결속도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보면 구조적 결속,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 일치적 결속, 규범적 결속 이렇게 6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최정혜(1992)의 연구에서 구조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이 한국사회의 노인과 성인자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결속도의 하위영역에서 구조적결속과 규범적 결속을 제외한 4개의 하위영역만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기능적 결속은 도움주기와 도움받기의 상반된 내용을 기능적 결속A와 기능적 결속B로 분리하여 5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도움주기), 기능적

결속B(도움받기), 일치적 결속으로 나타나며 총 22문항을 사용하였다.

① 접촉적 결속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이 집내외에서 하는 여가, 특별행사, 일상시의 접촉, 전화연락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문항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촉적 결속의 여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거의 하지않음'을 1점, '1년에 1번 이상'을 2점, '1달에 1번 이상'을 3점, '1주에 1번 이상'을 4점, '거의 매일'을 5점으로 측정하였다.

② 애정적 결속

중노년기 아버지가 미혼 딸로부터 느끼는 이해, 신뢰, 존중, 사랑, 친밀감, 의사소통, 협조 등의 감정상태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문항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촉적 결속의 여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다.

③ 기능적 결속A(도움주기)

중노년기 아버지가 미혼 딸을 경제적, 신체적으로 도와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문항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촉적 결속의 여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다.

④ 기능적 결속B(도움받기)

중노년기 아버지가 미혼 딸에게 경제적, 신체적으로 도움을 받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문항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촉적 결속의 여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다.

⑤ 일치적 결속

아버지와 딸 사이의 금전관리, 인생관 등에 관한 가치의 일치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문항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촉적 결속의 여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별로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대체로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측정하였다.

접촉적 결속은 ‘거의 하지않음’, ‘1년에 1번 이상’, ‘1달에 1번 이상’, ‘1주에 1번 이상’, ‘거의 매일’의 5점 척도를, 나머지 하위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우울척도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세 가지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¹⁾를 기초로 통합적인 척도를 개발한 최상진·전경구·양병창(2001)의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기본으로 박형인(2004)의 척도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CES-D척도는 정신질환인 주요우울증(Major Depression)에 대한 진단용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Randolph(1977)가 개발한 것이다. 이를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 한국판 CES-D척도이다. 이는 우울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ES-D척도는

1) 국내에서 개발되어 사용되어온 세 가지 한국판 CES-D 척도 :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이미준, 이호영 및 유재준(1991), 전경구, 이민구(1992), 조맹제와 김계희(1993)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정도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울 여부는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없었다’를 1점, ‘한두번 그랬다’를 2점, ‘자주 그랬다’를 3점, ‘매일 그랬다’를 4점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중 긍정적인 4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였으며²⁾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1> 각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척도의 종류		문항 수	점수 범위	Cronbach's α
결속도	접촉적 결속	4문항	4~20점	.63
	애정적 결속	6문항	6~30점	.80
	기능적 결속A	4문항	4~20점	.74
	기능적 결속B	5문항	5~25점	.76
	일치적 결속	3문항	3~15점	.80
	전체	22문항		.87
우울		20문항	20~80점	.90

2) 역코딩 처리문항 : 우울척도의 4, 8, 12, 16문항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미혼 딸이 있는 중노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의 실시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10월 1일~10월 10일 2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에 의해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을 회피하는 문항과 신뢰도가 인정되지 않은 문항에 대해 전공분야 교수의 평가와 조언을 받아들여 수정 및 제외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10월 15일~10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유의 추출법(purposive sampling)으로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조사방법을 교육받은 조사원과 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원들은 대부분 학교, 교회,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으며, 일부 메신저와 이메일을 이용한 파일전송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300부가 배부되어 총 20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내용이 부실 기재되거나 조사 대상과 알맞지 않은 응답자료 등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설문지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자료로 분석된 설문지는 총 191부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2>, <표 3>와 같다.

우선, 중노년기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연령의 경우 50대가 61.8%이고 40대가 22.5%이며 60대가 15.7%로 나타나 중노년기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중노년기 아버지의 학력은 초졸이하가 3.7%, 중졸이하가 5.8%, 고졸이하가 38.7%, 전문대·대졸이하가 41.9% 그리고 대학원 이상이 9.9%로 나타나

이들의 학력은 전체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직업이 있는 경우가 90.6%, 없는 경우가 6.8%로 나타나며, 세부적인 직업유형의 분류를 살펴보면 자영업이 22.5%, 기능직이 13.1%, 농업·어업·광업이 2.1%, 서비스직이 6.8%, 사무직이 22.5%, 관리직이 14.7% 그리고 전문직이 8.9%를 나타냈다.

소득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이 7.9%, '100~200만원 미만'이 20.4%, '200~300만원 미만'이 27.2%,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이 29.8%이 14.1%로 나타났다.

혼인여부에 있어서는, 혼인집단이 94.2%, 비혼인집단이 5.2%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혼인상태임을 나타내었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건강상태 여부에 대해서는 '건강이 좋지 않다'가 11.0%, '보통이다'가 46.6%, '건강한편이다'가 42.4%로 나타나 본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종교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64.9%, 종교가 없는 경우는 32.5%를 나타내었다.

은퇴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38.2%가 은퇴경험이 있으며, 61.8%가 은퇴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은퇴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은퇴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며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결과는 정부보조금이 1.0%, 근로소득 21.5%, 자녀보조 1.6%, 그리고 재산소득과 연금퇴직금이 같은 비율로 4.7%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은퇴 후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퇴전 직업으로는 은퇴경험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무직 2.6%, 자영업 4.7%, 기능직 6.3%, 서비스직 2.6%, 사무직 12.0%, 관리직 6.8%, 전문직 2.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노년기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연령의 경우, 20대 초반인 20~24세가 61.3%, 25~29세가 30.9%, 30~34세가 5.8%, 그리고 35세 이상이 2.1%를 차지하고 있어, 20대가 30대에 비해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은 고졸이 3.1%, 전문대·대재가 58.1%, 전문대·대졸이 29.8%, 대학원 이상이 8.9%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문대·대재의 비율이 높은 것은 20대 초반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결되고 있다.

직업은 무직이 2.6%, 학생이 63.9%, 자영업, 기능작업직이 1.0%, 판매, 서비스직이 2.1%, 사무, 관리직이 24.1%, 전문직이 6.3%를 나타내고 있다.

소득에 있어서는 '없음'이 55.0%, '100만원 미만'이 14.1%, '100~200만원 미만'이 22.5%, '200~300만원 미만'이 5.2%, '300만원 이상'이 2.1%를 나타내고 있다. 무소득 비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 자체 소득이 없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형제관계에 있어서 아들의 수는 1명이 62.8%, 없음이 27.2%, 2명 이상이 7.3%를 나타냈고, 딸은 1명이 49.7%, 2명 이상이 48.2%를 나타내었다.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첫째가 49.7%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으며, 둘째이하가 11.5%, 막내가 30.4%, 외동이 4.2%를 나타내었다.

종교여부는 종교가 있는 경우 61.8%, 종교가 없는 경우 35.1%를 나타내었다.

<표 2> 중노년기 아버지의 일반적 배경

(N=191)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연령	44~40대	43	22.5	건강	건강이 좋지 않다	21	11.0	
	50대	118	61.8		보통이다	89	46.6	
	60대	30	15.7		건강한편이다	81	42.4	
학력	초졸이하	7	3.7	종교	유	124	64.9	
	중졸이하	11	5.8		무	62	32.5	
	고졸이하	74	38.7	은퇴경험	유	73	38.2	
	전문대·대졸이하	80	41.9		무	118	61.8	
	대학원이상	19	9.9					
직업	무직	13	6.8	은퇴시 소득	은퇴경험없음	118	61.8	
	자영업	43	22.5		정부보조금	2	1.0	
	기능작업직	25	13.1		근로소득	41	21.5	
	농,어,광업	4	2.1		자녀보조	3	1.6	
	서비스직	13	6.8		재산소득	9	4.7	
	사무직	43	22.5		연금퇴직금	9	4.7	
	관리직	28	14.7					
	전문직	17	8.9					
소득	100만원 미만	15	7.9	은퇴전 직업	은퇴경험없음	118	61.8	
	100~200만원 미만	39	20.4		무직	5	2.6	
	200~300만원 미만	52	27.2		자영업	9	4.7	
	300~400만원 미만	27	14.1		기능작업직	12	6.3	
	400만원 이상	57	29.8		서비스직	5	2.6	
혼인관계	혼인	180	94.2	사무직	23	12.0		
	비혼인	10	5.2	관리직	13	6.8		
				전문직	5	2.6		
합계		191	100.0	합계		191	100.0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표 3>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일반적 배경

(N=191)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연령	20~24세	117	61.3	소득	없음	105	55.0	
	25~29세	59	30.9		100만원 미만	27	14.1	
	30~34세	11	5.8		100~200만원 미만	43	22.5	
	35세 이상	4	2.1		200~300만원 미만	10	5.2	
					300만원 이상	4	2.1	
학력	고졸	6	3.1	형제 관계	아들 수	없음	52	27.2
	전문대·대재	111	58.1			1명	120	62.8
	전문대·대졸	57	29.8		2명 이상	14	7.3	
	대학원 이상	17	8.9		딸수	1명	95	49.7
			2명 이상	92		48.2		
직업	무직	5	2.6	출생순위	장녀	95	49.7	
	학생	122	63.9		차녀이하	22	11.5	
	자영업·기능작업직	2	1.0		막내	58	30.4	
	판매·서비스직	4	2.1		외동	8	4.2	
	사무,관리직	46	24.1		종교	유	118	61.8
	전문직	12	6.3	무		67	35.1	
	합계		191	100.0	합계		191	100.0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3. 자료의 분석방법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 연구문제 1 >은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결속도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와 우울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연구문제 2 >은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와 우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또는 일원변량분석(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 연구문제 3 >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와 우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 또는 일원변량분석(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 연구문제 4 >은 우울에 대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에서 실시되었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서울시 거주자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미혼 딸이 있는 중노년기의 아버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기에 대표성이 결여됨으로 추후 각 지역의 고른 분포에 따른 조사가 요구되어진다.

둘째,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대한 미혼 딸과의 결속을 아버지의 관점에서만 살펴보았다는데 제한점이 있다. 즉, 중노년기 아버지와 미혼 딸의 관계에 대한 양방향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중노년기의 아버지와 미혼 딸의 전반적인 결속관계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녀간의 결속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측정도구는 대상이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관계를 보는데 있어 적절하도록 되어있으며, 성정형화된 항목이 많아 중노년기 아버지와 미혼 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적절치 않은 항목을 연구목적에 맞도록 측정도구를 수정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결속도 및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

< 연구문제 1 >인 미혼 딸과의 결속도(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와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미혼 딸과의 결속도와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결속도를 5개의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접촉적 결속은 10.91(SD=3.11, 점수범위 4~20)을 나타내었다. 애정적 결속은 19.33(SD=3.98, 점수범위 6~30)으로 중간값인 19.00에 비해 높게 나타나, 미혼 딸의 정서적인 부분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기능적 결속A는 12.73(SD=3.00, 점수범위 4~20)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 결속B는 14.25(SD=3.74, 점수범위 5~25)로 중간값 14.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치적 결속은 15점 만점에 9.99(SD=2.49, 점수범위 3~15)로 부녀간의 가치관에 있어 일치감이 높음을 나타내었다. 전체 결속도를 보면, 68.21(SD=11.57, 점수범위 22~110)로, 중간값인 69.00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수를 나타냈다.

우울의 경우, 35.41(SD=7.94, 점수범위 15~60)로 중간값인 35.0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결속도,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

변인		N	평균(M)	점수범위	표준편차(SD)
결속도	접촉적 결속	191	10.91	4~20	3.11
	애정적 결속	191	19.33	6~30	3.98
	기능적 결속A	191	12.73	4~20	3.00
	기능적 결속B	191	14.25	5~25	3.74
	일치적 결속	191	9.99	3~15	2.49
결속도		191	68.21	22~110	11.57
우울		191	35.41	15~60	7.94

2.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와 우울의 차이

본 연구의 < 연구문제 2 >와 < 연구문제 3 >인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속도, 우울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ANOVA,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결과를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와 우울의 차이

본 연구 결과 배경변인 중 아버지의 연령, 소득, 혼인관계, 건강, 은퇴경험이 미혼 딸과의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에는 아버지의 혼인관계와 건강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접촉적 결속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왔으며,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50대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60대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중노년기의 신체적, 사회적 변화 및 자녀의 성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를 보면 50대의 기혼남성의 경우 생계 부양자 의식이 가장 높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책임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숙현·이나련, 2001). 이것으로 보아 50대의 아버지들은 자신에게 형성된 생계부양자의식으로 인해 딸과의 접촉이나 활동시간을 갖기에는 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모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접촉의 빈도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적 결속B의 점수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부모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므로, 자녀의 영향이 높게 미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연령은 전체 결속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50대 집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60대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소득은 기능적 결속A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기능적 결속A의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소득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인 집단의 점수가 100~200만원 미만인 집단과 200~3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기능적 결속A는 아버지가 딸에게 행하는 신체적, 경제적 도움을 측정하는 부분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의무와 책임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적 부분이 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지만, 가장 소득이 낮은 100만원 미만인 집단이 200~300만원 미만 집단과 200~300만원 집단보다 기능적 결속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아버지가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강한 생계부양자의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혼인관계여부에서는 혼인관계일수록 기능적 결속A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우울과 관련된 혼인관계여부에 대해 비혼인관계 집단이 우울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부모가 비혼인관계일 때 우울감이 높다는 김수정(1996), 허준수·유수현(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여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접촉적 결속, 애정적 기능,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 전체적 결속 그리고 우울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속도의 전체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건강여부가 결속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한 집단일수록 접촉적 결속,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에서의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것은 노부모들이 자신의 건강이 좋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어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원만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은주, 1994). 또한 우울의 경우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여부가 좋

지 않을수록 우울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태현(1999), 강희숙·김근조(2002)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은퇴경험에 대해서는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와 전체 결속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능적 결속A에 대해서는 은퇴경험이 있을수록 기능적 결속A가 낮게 나타났고 은퇴경험이 있을수록 기능적 결속B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은퇴로 인해 자녀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김수정(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은퇴 경험에 있을수록 전체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 중 연령, 소득, 혼인관계, 건강, 은퇴경험이 결속도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혼인관계와 건강은 우울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즉,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를 보면, 연령은 60대 일 때 접촉적 결속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능적 결속B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60대일 때 전체 결속도는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400만원 이상일 때 기능적 결속A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 일치적 결속, 전체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적 결속B는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나 집단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기능적 결속A가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적 결속B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수록 일치적결속이 높았다.

배경변인에 따른 우울은 비혼인관계일 때,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문제가 있을 때에 우울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 선행연구들(신철호 외, 1996; 원정문 외,1998; 박인옥, 1998; 송양순, 2000; 강지선, 2002)과 일치한다.

<표 5>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 우울의 차이

변인	분류	결속도															결속도			우울		
		접촉적결속			애정적결속			기능적결속A			기능적결속B			일치적결속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연령	44-40대	11.51	3.08	AB	19.77	4.30	14.28	2.68	13.44	3.10	A	9.88	2.58	68.88	11.32	AB	34.91	7.29				
	50대	10.46	3.13	A	18.86	3.78	13.68	3.01	13.91	3.54	A	9.91	2.35	66.81	11.14	A	35.35	8.15				
	60대	11.83	2.82	B	20.53	4.11	13.13	3.34	16.77	4.36	B	10.50	2.90	72.77	12.66	B	36.40	8.12				
	F값	3.46*			2.47			1.34			9.00***			.73			3.34*			.32		
학력	초졸	10.43	.54		17.86	3.34	12.71	2.81	13.29	3.77		8.14	1.86	62.43	6.55		32.71	6.92				
	중졸	10.45	3.14		18.00	3.90	12.00	3.77	13.55	4.50		9.27	2.69	63.27	13.45		41.09	12.80				
	고졸	11.16	3.15		18.84	4.01	13.39	2.81	14.47	3.43		9.88	2.40	67.74	10.89		35.07	7.12				
	전대졸	10.58	3.29		19.80	3.80	14.10	3.00	14.35	3.57		10.13	2.53	68.95	11.39		34.09	7.42				
	대학원이상	11.79	2.68		20.58	4.57	14.84	2.91	13.74	5.16		11.00	2.48	71.95	14.19		36.16	8.84				
	F값	.83			1.36			2.37			.38			2.11			1.56			2.41		
직업	무직	11.54	3.82		19.31	4.52	13.00	3.24	16.62	4.63		9.46	2.76	69.92	13.28		35.23	10.16				
	자영업	11.56	3.28		19.81	4.71	13.72	2.91	14.51	4.27		10.09	2.32	69.70	12.82		35.29	8.34				
	기능작업직	9.96	2.56		17.12	3.19	12.28	2.88	13.60	3.10		8.68	2.46	61.64	9.25		35.76	6.93				
	농어광업	10.50	1.73		21.25	4.43	13.75	4.35	15.75	6.65		11.00	3.37	72.75	16.96		33.50	8.54				
	서비스직	11.77	2.80		20.38	3.38	13.77	3.49	14.69	3.47		10.46	2.37	71.08	10.73		36.08	8.55				
	사무직	10.72	2.84		19.63	3.40	14.16	2.77	14.09	2.84		10.26	3.33	68.86	9.42		35.47	7.08				
	관리직	11.11	3.11		19.39	3.40	14.54	2.46	13.96	3.79		10.61	2.42	69.61	10.72		35.00	7.74				
	전문직	9.76	3.72		18.41	4.17	14.00	3.76	13.47	3.43		9.94	3.03	65.59	13.77		35.14	9.36				
	F값	1.28			1.49			1.22			1.52			1.38			1.61			.14		

*p<.05, **p<.01, ***p<.001

변인	분류	결속도															결속도			우울		
		접촉적결속			애정적결속			기능적결속A			기능적결속B			일치적결속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소득	100만원미만	12.33	4.10		20.60	5.87		13.73	3.71	ABC	15.67	4.22		9.73	3.06		72.07	15.17		35.40	10.86	
	100~200만원미만	11.26	2.78		18.08	3.58		12.38	2.48	A	14.41	4.24		9.46	2.66		65.59	11.02		36.72	6.10	
	200~300만원미만	10.21	3.13		19.15	3.75		13.12	3.53	AB	13.71	3.56		9.69	2.19		65.88	11.09		36.98	7.94	
	300~400만원미만	11.30	2.57		19.89	4.15		14.52	2.06	BC	14.48	3.66		10.19	2.69		70.37	12.05		33.00	6.00	
	400만원이상	10.75	3.20		19.84	3.64		14.77	2.53	C	14.11	3.47		10.63	2.34		70.11	10.73		34.16	8.75	
	F값	1.72			1.74			5.10***			.87			1.66			2.10			1.77		
혼인관계	혼인	10.87	3.13		19.20	3.86		13.71	3.01		14.36	3.75		10.02	2.49		68.16	11.61		35.00	7.44	
	비혼인	11.20	2.86		20.60	4.90		13.40	2.32		12.70	3.20		9.40	2.59		67.30	10.12		42.70	12.85	
	t값	-.32			-1.10			.41*			1.37			.76			.23			-1.88**		
건강	건강이 좋지 않다	9.90	3.18	A	18.52	4.33	A	12.95	3.442	A	13.38	3.15	A	9.19	2.71	A	63.95	10.05	A	46.60	10.66	B
	보통이다	10.40	2.96	A	17.98	3.18	A	12.94	3.020	A	13.74	3.49	A	9.33	2.18	A	64.39	10.05	A	39.36	6.88	A
	건강한편이다	11.73	3.10	B	21.02	4.09	B	14.79	2.528	B	15.04	4.02	A	10.94	2.47	B	73.52	11.49	B	37.53	7.12	A
	F값	5.30**			14.76***			9.62***			3.26*			11.18***			17.34***			13.12***		
종교	유	11.23	3.17		19.69	4.06		13.81	3.00		14.43	3.90		10.29	2.40		69.45	11.97		35.23	7.93	
	무	10.21	2.94		18.52	3.47		13.71	3.02		13.94	3.40		9.65	2.46		66.02	10.13		35.35	7.22	
	t값	2.95			1.95			.21			.85			1.71			1.94			-.10		
은퇴경험	있다	10.99	3.31		19.51	4.37		13.70	3.38		14.58	4.24		9.89	2.72		68.66	13.17		36.37	79.6	
	없다	10.86	3.00		19.22	3.74		13.75	2.76		14.05	3.39		10.06	2.35		67.94	10.50		34.62	78.95	
	t값	2.13			.48			-.10*			.89*			-.45			.39**			1.31		

*p<.05, **p<.01, ***p<.001

2)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와 우울의 차이

본 연구 결과 배경변인 중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형제관계 중 딸의 수, 종교에서 유의한 부분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적 결속B의 점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미혼 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 승진 등의 사회적인 지위 변화로 인해 부모에게 신체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연령과 일치적 결속과의 유의한 관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속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집단과 30대 집단에 차이가 있으며 20대일 때 일치적 결속이 낮게 나타났다. 이사라(1995)는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세대는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기성세대로 갈수록 전통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명자·김일명, 1989).

학력은 기능적 결속B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균값의 차이는 있으나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기능적 결속B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며, 집단 간 차이를 보이려 보이고 있는데, 전문직과 자영업, 기능작업직³⁾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 학생 집단과 무직 집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이 직업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소득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기능적 결속B의 점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미혼 딸이 경제적인 여유가 클수록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가

3) 본 조사에서 자영업, 기능작업직의 직업을 가진 미혼 딸의 소득이 높은 편이었다.

수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형제관계 중 딸의 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딸의 수가 적을수록 일치적 결속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는 남성이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역할의식과 정적 관계를 띄고 있으며(이숙현·이나련, 2001), 이러한 성정형화된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중노년기 아버지는 점차 근대적 사고를 행하는 딸이 많을수록 가치관의 합일점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는 기능적 결속A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인 가치관의 공유에 있어 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미혼 딸의 배경변인 중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형제관계 중 딸의 수, 종교에서 결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능적 결속B와 일치적 결속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집단간 차이 없이 기능적 결속 B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업은 전문직, 자영업, 기능직일 때, 소득이 높을수록, 기능적 결속B가 높게 나타났고 딸의 수가 적어질 때 일치적 결속은 높아졌다. 종교가 있을 때 기능적 결속A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 딸의 배경변인은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 우울의 차이

변인	분류	결속도															결속도			우울		
		접촉적 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연령	20~24	10.72	3.15		19.08	4.03		14.09	3.03		13.48	3.43	A	10.01	2.56	A	67.38	11.60		35.50	8.07	
	25~29	10.98	3.09		19.37	3.81		13.34	2.90		14.95	3.63	AB	9.59	2.29	A	68.24	11.07		36.02	8.07	
	30~34	11.27	2.57		20.36	4.01		12.73	2.80		17.18	4.83	BC	11.00	2.00	AB	72.55	11.86		32.55	5.28	
	35세 이상	14.50	1.92		23.25	3.78		11.50	2.65		18.50	3.11	C	12.75	2.87	B	80.50	11.73		31.75	7.89	
	F값	2.02			1.72			2.09			6.92***			2.81*			2.27			.88		
학력	고졸	9.50	4.18		18.17	4.71		12.17	3.76		13.67	3.08	A	9.17	4.26		62.67	12.32		40.50	8.04	
	전,대졸	10.65	3.10		18.93	3.91		13.86	2.99		13.60	3.46	A	9.94	2/55		66.98	11.38		35.75	8.13	
	전,대졸	11.39	3.17		19.89	4.14		13.30	3.08		15.26	4.06	A	9.96	2/28		69.81	11.86		35.35	7.68	
	대학원 이상	11.53	2.43		20.47	3.52		14.82	2.22		15.29	3.89	A	10.76	2/08		72.88	10.26		31.65	6.47	
	F값	1.35			1.40			1.79			3.09*			.78			2.20			2.21		
직업	무직	9.80	3.11		17.40	3.78		10.60	2.88		11.60	2.30	A	9.20	.84		58.60	9.45		37.60	10.92	
	학생	10.74	3.04		19.09	3.99		14.07	2.92		13.56	3.36	AB	10.00	2.56		67.45	11.29		35.34	7.94	
	자영업,기능작업직	10.50	3.54		15.00	.00		11.50	3.54		16.50	10.61	B	7.50	6.36		61.00	16.97		34.00	7.07	
	판매,서비스직	10.00	4.40		19.25	4.57		13.75	4.57		14.25	2.50	AB	10.50	3.70		67.75	10.72		40.25	8.62	
	사무,관리직	11.33	3.33		19.76	3.76		13.20	2.07		15.59	3.80	AB	9.93	2.29		69.80	11.48		35.17	8.04	
	전문직	11.92	2.71		21.67	4.21		14.00	2.37		16.92	4.40	B	10.75	2.01		75.25	12.56		34.83	7.04	
	F값	.69			1.77			1.98			4.21***			.76			2.07			.40		
소득	없음	10.61	3.09		18.85	3.87		13.80	3.07		13.33	3.49	A	9.94	2.60		66.53	11.54		35.77	8.14	
	100만원 미만	11.30	3.45		19.78	4.36		14.00	2.80		14.30	2.63	A	9.89	2.58		69.26	10.91		33.37	6.74	
	100~200만원 미만	10.88	3.12		19.60	3.77		13.63	3.22		15.56	3.74	AB	9.93	2.46		69.60	11.88		35.12	8.24	
	200~300만원 미만	12.20	2.62		21.10	4.46		13.30	2.36		16.40	4.67	AB	10.50	1.58		73.50	10.27		36.30	5.44	
	300만원 이상	11.75	2.22		19.25	5.06		12.25	3.20		17.75	6.85	B	11.50	2.08		72.50	14.27		36.70	12.26	
	F값	.85			1.01			.37			4.98***			.49			1.43			.57		

*p<.05, **p<.01, ***p<.001

변인	분류	결속도															결속도			우울			
		접촉적결속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A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형제 관계	아들 수	없음	10.73	3.00		19.48	3.98		13.96	2.47		14.88	3.52		9.90	2.19		68.96	10.41		35.25	8.14	
		1명	10.91	3.14		19.18	3.92		13.87	3.12		13.76	3.78		9.87	2.64		67.58	11.75		35.58	7.88	
		2명 이상	11.93	3.39		21.07	4.53		13.00	3.23		15.79	4.02		11.43	2.41		73.21	13.92		33.21	8.01	
	F값		.83			1.43			.61			2.99			2.49			1.58			.56		
	딸수	1명	11.17	3.29		19.24	4.25		14.12	3.07		13.52	3.62		10.11	2.74		68.15	12.09		35.58	8.11	
		2명 이상	10.72	2.91		19.55	3.70		13.51	2.81		15.00	3.78		9.87	2.28		68.65	11.10		35.03	7.75	
t값			.99			- .54			1.41			-2.74			.64*			-.30			.47		
출생순위	첫째	10.97	3.14		19.22	3.82		13.84	2.85		13.92	3.59		9.92	2.37		67.86	10.96		35.03	7.45		
	둘째이하	11.55	3.02		20.00	4.68		13.09	3.31		16.00	4.88		9.86	3.30		70.50	14.66		34.36	8.64		
	막내	10.67	3.14		19.52	3.90		13.90	2.99		14.10	3.21		10.14	2.42		68.33	11.00		36.29	8.72		
	외동	10.50	3.25		17.50	4.34		14.25	2.61		13.50	3.74		9.38	2.72		65.13	11.99		36.25	8.12		
	F값		.47			.84			.51			2.07			.260			.51			.46		
종교	유	10.90	3.20		19.53	4.02		13.83	2.81		14.49	3.85		10.15	2.53		68.91	11.81		34.66	7.40		
	무	10.87	3.02		18.88	3.72		13.64	3.32		13.88	3.54		9.93	2.28		67.19	10.95		36.28	8.13		
	t값		.07			1.09			.39*			1.07			.61			.97			-1.38		

*p<.05, **p<.01, ***p<.001

3. 배경변인, 결속도가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 연구문제4 >의 배경변인, 결속도가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전에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막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높은 상관을 보인 변인은 제거한 뒤⁴⁾, 단계별(Stepwise)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최종적인 상관계수는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된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 표7 >과 같다.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한 결과, 1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0%로 나타났으며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과의 전체 결속도($\beta = -.31, p < .001$)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결속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두 번째 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14%로 나타나 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체 결속도($\beta = -.24, p < .01$)와 건강($\beta = -.21, p < .01$)이 유의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결속도가 낮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혼인관계변인이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설명력은 17%로 3%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전체 결속도($\beta = -.24, p < .01$), 건강($\beta = -.22, p < .01$) 그리고 혼인관계($\beta = -.17, p < .05$)가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결속도, 건강, 혼인관계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부정적인 beta값을 가졌다. 즉, 전체 결속도가 낮을수록,

4) 미혼 딸의 소득변인($r = .85^{**}$)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혼인관계가 아닐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결속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고 건강, 혼인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혼 딸과의 결속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가족결속력이 우울을 완화시킨다는 김태현(1999)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중요성과 더불어, 혼인관계가 우울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에서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한경혜 · 이정화 · 옥선화 · Ryff, C., · Marks, N.(2002)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표 7>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우울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결속도	-.21	-.31***	-.16	-.24**	-.16	-.24**
건강 ¹⁾			-2.47	-.21**	-2.53	-.22**
혼인관계 ²⁾					6.24	-.17*
constant	49.59		51.94		57.84	
R ²	.10		.14		.17	
F값	18.64		13.57		11.23	

*p<.05, **p<.01, ***p<.001

1) 건강 :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이 나쁨을 의미함

2) 혼인관계 : 혼인=1, 비혼인=0

VI. 결론 및 논의

현대사회는 평균수명이 80세까지 늘어나면서 가족생활주기로서의 중노년기가 길어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중노년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노년기는 신체적으로 노화를 느끼는 단계이며 사회적으로는 생계부양자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부담과 책임감에 대한 심각한 역할 갈등을 느끼고 자녀의 독립과 은퇴를 함으로써 상실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또한 중노년기는 이러한 상실감을 경험하며 혼란과 갈등을 수반하는 위기의 시기로, 이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및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의 유대가 노년기의 정신건강에 중요하다고 밝혀진 여러 연구들은 큰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서병숙·신효식, 1992; 전병재 외, 1994, 김태현, 1999). 또한 결속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김태현, 1999).

본 연구에서는,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던 미혼 성인자녀 중 전통적으로 애정적, 통합적 존재로 인식되어온 딸과의 결속을 중노년기 아버지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그 상호작용이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20, 30대의 미혼 딸이 있는 중노년기의 아버지로, 총 연구 대상자는 191명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변량분석, 적률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등이 실시되었다. 이상의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노년기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의 결속도와 우울의 전반적인 경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중노년기 아버지와 미혼 딸의 결속도를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접촉적 결속은 10.91로 나타났으며, 애정적 결속은 19.33, 기능적 결속A는 12.73, 기능적 결속B는 14.25, 그리고 일치적 결속은 9.99이며 5개의 하위영역의 점수를 종합한 전체 결속의 점수는 68.21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35.41로 중노년기의 남성이 경험하는 우울의 정도가 약 30점 정도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결속도에서는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B, 일치적 결속이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접촉적 결속과 기능적 결속A, 전체 결속도는 중간값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값은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핵가족화로 인해 현대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결속도의 결과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본적인 애정과 관심, 세대간의 가치관 교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중노년기 아버지들은 미혼 딸이 제공하는 신체적, 경제적 도움의 정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더불어 딸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일치적 결속을 고려할 때, 애정적이고 친밀도가 높은 딸은 아버지에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아버지가 딸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일치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접촉적 결속이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부녀간에 기본적인 애정관계 및 일치감은 형성되어 있으나 상호 직접적, 간접적인 교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위치가 주는 도구적 역할의 부담으로 인해 자녀와의 애정적이고 빈번한 교류가 쉽지 않고, 아버지들이 주로 가정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가 적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부장제도의 전통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받은 중년남성의 가치관과 그들의 자녀의 개인성향이 강한 새로운 가치관의 혼란으로 가족상호작용에서 상대

방에 대한 욕구의 좌절, 기대의 불일치, 불만족차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안진석, 2002). 아버지가 미혼 딸에게 제공하는 신체적, 경제적 도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능적 결속A의 경우 약간 낮게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이 예전의 전통적인 수동적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의 전체적 결속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중노년기 아버지와 미혼 딸의 세대간 가치관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소연, 2001).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은 높게 지각되었으며, 이것은 최근의 중노년기 아버지들의 우울감이 높은 것은 신체적인 노화,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 및 상실감 외에도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로서, 근대적 경향을 가진 자녀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우울감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와 우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속도의 경우 중노년기 아버지의 배경변인 중 연령, 소득, 건강, 은퇴경험이 결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은 혼인관계와 자신이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를 보면, 연령은 60대 집단일 때 접촉적 결속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능적 결속B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60대일 때 전체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400만원 이상일 때 기능적 결속A, 일치적 결속, 전체 결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적 결속B는 건강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배경변인에 따른 우울은 비혼인관계일 때,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중노년기 아버지는 전통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도구적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들이 느끼는 우울감은 건강과 혼인관계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변화를 겪는 중노년기 아버지들은 자신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융통성을 갖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며 한편으로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속도와 우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결속도의 경우는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의 연령, 학력, 직업, 소득, 형제관계 중 딸의 수, 종교에서 결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기능적 결속B와 일치적 결속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미혼 딸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 승진 등의 사회적 지위 변화로 인해 부모에게 신체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과 일치적 결속과의 유의한 관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과 관련지어, 대학생 세대는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기성세대로 갈수록 전통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명자·김일명, 1989). 다만 20대 집단에서 가장 낮은 일치적 결속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혼인 딸에게 있어 그 시기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취업, 정신적·경제적 독립과 결혼적령기의 문제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력은 집단간 차이없이 기능적 결속B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직업은 전문직, 자영업·기능작업직일 때, 소득이 높을수록, 기능적 결속B가 높게 나타났고 딸의 수가 적어질 때 일치적 결속은 높아졌다. 자녀수는 남성이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남성생계 부양자 역할의식과 정적 관계를 띄고 있으며(이숙현·이나련, 2001), 이러한 성정형화된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중노년기 아버지는 점차 근대적 사고를 행하는 딸이 많을수록 가치관의 합일점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해석된다. 중

교가 있을 때 기능적 결속A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치관의 공유에 있어 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혼 딸의 배경변인은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중노년기 아버지와 근대적 성향이 강한 미혼 딸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여유가 부족하며 상호유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녀간의 원활한 교류가 필요하다.

넷째, 우울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의 단계별 접근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가장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하는 미혼 딸과의 전체 결속도, 중노년기 아버지의 건강여부와 혼인관계로 나타났다. 전체 변인들이 갖는 설명력은 총 17%였다. 즉, 결속도가 높고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으며 혼인관계일 때,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결과를 볼 때,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은 딸과의 결속도가 높을 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어 우울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무력감, 신체질환에 대한 불안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 딸과의 결속이 높다면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 작용을 하여 우울감을 낮춰준다. 또한 혼인관계는 사회적, 심리적으로 받는 안정성과 배우자 및 자녀가 주는 가족지지, 유대관계를 통해 중노년기 아버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측면에서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미혼 딸과의 결속 및 중노년기 아버지의 건강, 혼인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을 미혼 딸과의 결속으로 살펴볼 때 있어, 세대간 유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

해야한다. 부녀간 공통적인 관심사를 찾아 자연스러운 유대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감에 대해,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 불편함이 긴장 및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무력감과 상실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나타내었다. 가족 내 안정감을 제공하는 혼인관계에 대해서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의 비혼인집단일 경우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노년기의 아버지들이 시기적 특성에 따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안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관계에 대한 서로의 평가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노년기 아버지들은 미혼 딸과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가족외적인 주제에 있어 일치감을 보일수록 부녀간의 갈등이 적고 교류가 활발하여 부녀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중노년기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생계부양자로서의 부담 및 책임감에 있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딸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기존의 전통적 관념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관계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과 집단의 미혼 딸이 있는 중노년기 아버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그 영향이 우울에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어 이 부분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미혼 딸이 있는 중노년기 아버지를 포괄적으로 수집한 집단 내에서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에 대해 아버지가 지각하는 딸과의 결속을 살핀 것으로, 엄밀히 부녀간의 결속을 연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딸의 쌍방향적인 비교를 통해 부녀간의 유대를 연구함으로써 영향력을 살핀다면, 더욱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중노년기 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각한 미혼 딸의 세대간 유대관계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의 설문 문항을 본문에 맞게 수정하였다. 그러나 대상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른 연령대의 특성이 배제되어 있고, 문항이 성정형적인 부분이 있어 현 시대의 적절한 부녀간의 상호작용 측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세대간 상호작용과 유대관계를 표현하는 문항들에 대해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고 각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문항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노년기 아버지의 우울을 완화시키고 우울완화를 위해 중노년기 아버지와 미혼 딸의 결속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다양한 요인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들의 개발을 통해 중노년기 아버지를 위한 치료적, 상담적 개입에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앞으로 중요한 후속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선(2002). 노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숙·김근조(2000). 일부지역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과의 관련성.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6(4), 451-459.
- 권석만(1996). 우울과 불안의 관계 : 유발 생활사건과 인지내용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심리과학, 5(1), 13-38.
-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 김명자·김일명(1989). 기성세대와 대학생의 가족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1), 59-78.
- 김명자·손서희(2005). 기혼자녀(아들, 딸)와 부모간의 정서적 결속도에 따른 부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3(7), 37-51.
- 김수정(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2000). 세대간의 유대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민(2003). 중년기 남성의 일·가족역할 수행 부담 및 심리적 복지.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0).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of Elderly Parents. 생활과학연구, Vol 4, 169-178.
- 김은경(2002). 농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4), 27-36.

- 김은주(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8). 고도의 산업화와 한국의 교육적 과제. 한국교육학회, 16(2), 19-21.
- 김지영·최상진(2003). 여성의 효심에 관한 질적인 접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49-67.
- 김태현·김수정(1996). 노인이 지각한 세대간 결속과 우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6(1), 110-129.
- 김태현(1999). 노인의 가족결속도와 효의식 및 우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 한국노인과 재미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노년학회, 19(2), 79-96.
- 김현덕(1994).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노모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10(1), 71-111.
- 김효정(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무숙(1995). 노모와 성인딸/며느리간의 상호원조유형이 부양부담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15(1), 74-90.
- 박인옥(1997). 한국노인의 우울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응임(1996). 아버지 역할에 관한 고찰. 안동대학 논문집. 18(1), 189-203.
- 박정희(1999). 주부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가족관계 변인 : 청소년 자녀가 있는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희(2004). 기혼남녀의 성격특성, 가족관계스트레스, 여가활동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인(2004). 근로자가 지각한 우울,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신효식(1992).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가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
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회, 12(2), 99-108.
- 서병숙·신효식(1994). 노부의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손
상간의 인과모형 . 한국노년학회, 14(2), 121-132.
- 성규탁(1990).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 한국노년학회, 10(1),
163-181.
- 성은숙(2003). 기독교 신앙생활과 부부간 의사소통, 우울증, 결혼만족도의 관
계.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대현·박한기(1992). 한국노인들의 자존심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2(1), 79-96.
- 송숙자(2002). 중년기의 대처방식과 정서적 위기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양순(2000). 재가노인의 우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
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적관계망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영(2001). 스트레스 사건, 부적응적인 도식, 자동적 사고와 우울 및 사회
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철호 외(1996). 일부지역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우울에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29(2), p211.
- 안진석(2003). 중년남성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강
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정문 외(1998). 노인들의 우울성향과 관련요인, 가정의학회지, 19(1), p83.
- 유희옥(2004). 중노년기의 죽음 불안태도 -내세관·죽음준비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금남(2001). 기혼 딸과 친정어머니의 친밀감 및 부양의식. 한림대학교 사

- 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길자(1991). 일부지역 중년기 여성의 자아개념과 우울 및 자각증상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사라(1994).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딸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 이수영(2005). 노년의 생활: 노년기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대왕사.
- 이숙현·이나련(2001). 연령대에 따른 기혼 남성의 생계 부양자 역할 의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21-41.
- 이신숙·서병숙(1993). 기혼여성의 노모 부양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관리학회지, 31(4), 67-79.
- 이여봉(1998).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 한국가족문화학회, 39-52.
- 이영자(1998).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정(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정·최해경(200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남출판.
- 이종범·정성덕(1985). 노인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4(3). 431-444.
- 이진숙(2002). 중년기남성의 우울감 대처. 복음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선주·서병숙(1991).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감정연구;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의 비교, 한국생활과학연구, -(1), 135-161.
- 전길양(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병재 외(1994). 위기에 선 가족. 다산출판사.

- 정옥분(2001). 성인발달과 노화. 교육과학사.
- 조병은(1988).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ged parents. University of Delaware. 박사학위논문.
-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회, 1(1), 105-124.
- 조소연(2001). 부모와 미혼 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주(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갈등 및 부양의무감과 부모 부양의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영(1994). 고교생이 지각한 부-자녀간 애정적유대와 대인관계성향간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 전겸구 ·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경(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 가족부양체계를 중심으로 한 인과모형의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 · 송지은(2001). 중년 남성의 건강에 가족 및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1), 51-73.
- 한경혜 · 이정화 · 옥선화 · Ryff, C. · Marks, N.(2002).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회, 22(2), 209-225.
- 허준수 · 유수현(2002).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 7-35.
- 황수섭(1999). 노인의 우울과 관련되는 심리,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tkinson, M .P., ().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 examination of a

-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41, 408-416.
- Bedford, H. Victoria,(1992). "Memories of Parental Favoritism and the quality of parent -child Ties in Adulthood,"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4, , S. 149-155.
- Bengston, V. L. & Peterson, J. A.(1972),"An Exploration of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ctivity Typ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in Movers to a Retirement Community", *Journal of Gerontology*, 27(4).
- _____ & Schrader, S.S,(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Mangen, D. & Peterson, W.A.(Eds), *Resea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Vol2: Social roles and Particip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 Bengston, V.. Rosenthal, C., and Burton, L.,(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Third Edition, Academic Press, Inc.
- Connidis, L. A. and Davis, L. ,(1990). "Confidants and companions in later life:The Place of Family and Friend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5(4).
- Cheal, D. J.,(1983). "Intergenerational family transf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Dwyer, J. W. & Coward, R. T.,(1991). A multi variate comparison of the involvement of adult sons versus daughters in the care of impaired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46, S259-269.
- Elwell, F., & Malt-bie-Crannell, A.D.(1981). The Import of Role Loss upon Coping Resource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36, 223-232.

-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 Y.:Norton.
- Erikson, E. H., Erikson, J. M., & Kivnick, H. Q.(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New York: Norton.
- Ferraro, K. F. & Su, Y.(1999). Financial strain, social relat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people: Across-cultur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54, S3-S15.
- Fengler, A. P. & Danigelis, N.,(1982). "Residence, the Elderly Widow, and Life Satisfaction", *Research on aging*, 4.
- Festinger, L., Schachter, S. & Back, K.,(1983). *Social pressures in informal groups.*, New York: Harper, 1950; Pittman, J. K., price-Bonham, S.,Mckenry, P. C., "Marital Cohesion: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Gallo, J.J., Authony, J.C., Muthenm. B. O., "Age difference in the Symptoms of Depression : A laten trait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 Psychological sciences, 1994, 49, 251-264.
- Glenn, N. & Mclanahan, S. (1982).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 a futher spec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63-72.
- Hess, B, & Wring. J., (1978). "Changing patterns of aging and family bonds in later life," *The family coordinator*. 27,
- Jarvik, L. F.(1976). Aging and depression: Some unanswered questions. *Journal of Gerontology*, 31, 324-326.
- Kotelchuck, M.(1972). *The nature if th child's tie to his fat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vard University.
- Lamb, M. E.(1978). The father;s role in the infant's social world. In J. Stevens & M. Mathews(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 Wash. D. C. : NAEYC.

- Lavee, Y. S, Sharlin, S. & Katz, R.(1996).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marital quality : an integrated mother-father model. *Journal of Family Issue*, 17. 114-135.
- Lawrence, R. H., Bennett, J. M. & Markides, K. K.(1992). Perceive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Mexican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47(2), s55-65.
- Levinson, D.(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 Knopf.
- Loughlin, Agnes. (2004).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Effective Treatments for Homebou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0(5), 11-15.
- Markides, K. S. and Krause, N. (1985),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Mexican Americans: a three-generations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0, 390-392.
- Olson, D. H., Sprenkli, D. H., & Russel, C. S.,(1976).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cohe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 Parke, R. D., O'Lesry, S. E., & West, S.(1972). Mother-father-newborn interaction : effects of maternal medication, labor and sex of infan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5-86.
- Parsons, T.(1995). Family structure and socialization of the child. In T. Parsons, & R. F. Bales,(Eds.),*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 Free Press.
- Pfeiffer, E.(1977). Psychopathology and sociopathology. In j. E. Birren & K. W. Schaie(Eds.), *Handbook of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Randol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I, 385-401.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uff, H. A., & Lawson, K. R.(1990).Development of sustained focused attention in young children during free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26, 85-93.
- Shannas, E.,(1973). social myth as hypothesis: The Case of the Family Relations of the Old People, *The Gerontologist*, 19(1).
- Suitor, J. J., Pillemer, K., Keeton, S., & Robinson. J.(1995). Aged parents and aging children: Determinants of relationship quality. In R. Blieszner & V. H. Bedford(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pp.223-242).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Uhlenberg, P. & Cooney,(1990). T. T M., Family size and Mother-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3(5).
- White, L. K., Booth, A. & Edwads, J. N.(1986).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 why the negative corre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7, 131-147.

ABSTRACT

**A Study on Depression of Middle Aged and Elderly Father
-The Effect of Perceived Solidarity
with Premarital Daughter on Middle Aged and Elderly Father-**

Jang Hye Yeo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effect of perceived solidarity with premarital daughter on Middle Aged and Elderly Father. It specifically focused on how fathers' perceived solidarity with their daughter influence the level of depression.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d solidarity involving 5 sub-categories of contactual solidarity, affectional solidarity, functional solidarity A(helping a help), functional solidarity B(receiving a help), agreement solidarity, by focusing on how those factors influence the middle-aged and elderly father's level of depression.

This study tested solidarity, and CES-D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fathers analyzing 191 who have premarital daughters in their 20's or 30's in the Seoul. Depression symptoms were measured by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which was designed to measure symptoms of depress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not to diagnose depression.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2.0, presenting frequencies, percentag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as follows :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general pattern of solidarity of the middle aged and elderly father's perception with premarital daughter and depression.

Among five sub-categories, all sub-categories of solidarity such as solidarity by contact, helping, receiving a help, primary solidarity and solidarity by affection was appeared slightly lower than medium value.

The value of contact solidarity was 10.91 (SD=3.11, value range 4~20).

Solidarity by affection was 19.33, which was higher than the average value.

Functional solidarity A(helping a help) was 12.73 (SD=3.00, value range 4~20), and functional solidarity B(receiving a help) was 14.25 (SD=3.74, value range 5~25), which was 14.00point higher than the average value.

Agreement solidarity was 9.99 out of 15 (SD=2.49, value range 3~15), showing high agreement between the father and the daughter in their values. The overall solidarity was 68.21 (SD=11.57, value range 22~110), which was lower than the half of the average value of 69.00. Depression value was 35.41 (SD=7.94, value range 15~60), which was higher than

the average value of 35.00.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olidarity level regarding different background variables. Contact solidarity was low when the fathers are in their 50's while it appeared higher when they are over 60's and healthier. Functional solidarity A appeared higher when the fathers' income was higher, when they were married, when they were healthier, and when they had not yet retired. The group with an income of less than 1 million won showed higher functional solidarity than the groups with an income of 1~2 million won and 2~3 million one. Functional solidarity B showed higher when they were over 60 and had once retired. functional solidarity B was higher when they were healthier but it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Agreement solidarity also appeared higher. Overall solidarity value appeared lower when the fathers were in their 50's, while it appeared high when they were over 60, healthy, and had never retired yet. Depression level showed higher when they were not married and unhealthy.

Third, this study indicated that how the premarital daughter's background factors influence on father's perceived solidarity and the level of depression. Functional solidarity A was higher when the fathers had religion. Functional solidarity B was higher when they were older. It was influenced the education level, but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Moreover it was higher when their professions were self-employers, technicians, or professionals, and their income was higher. Agreement solidarity showed higher when they were over 30 and

had only one daughter.

Fourt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tial factors on the middle aged and elderly father's depression level. The overall solidarity level was highly influenced on the middle aged and elderly father's depression level, and health, and the marital statu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on the middle aged and elderly father's depression level. In other words, depression level appeared high when their solidarity level was lower and they were unhealthy or unmarri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this study concluded that father-daughter's solidarity is a significant factor that relieves father's de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elp establish effective supporting system for middle aged and elderly father through the effe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fathers and daughters.

부록1.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연령																	
2 학력	.09																
3 직업	-.14	.45**															
4 소득	-.09	.40**	.49**														
5 혼인관계	.02	-.08	-.15*	-.14													
6 건강	-.02	.06	.01	.15*	-.07												
7 종교	-.01	-.11	-.02	-.01	.06	-.02											
8 은퇴경험	-.16*	.07	.03	.18*	-.01	-.03	-.03										
9 딸_연령	.55**	-.00	-.12	-.07	-.03	.09	-.10	-.10									
10 딸_학력	.25**	.12	-.01	.17*	.05	.13	-.05	-.09	.42**								
11 딸_직업	.46**	.03	-.04	-.00	.05	.01	-.17*	-.16*	.64**	.48**							
12 딸_소득	.41*	.07	-.05	-.00	.10	.02	-.18*	-.25**	.63**	.52**	.85**						
13 아들유무	-.08	.06	.07	.06	.06	.04	.02	.12	-.02	.16	-.00	.02					
14 딸 수	.15*	.05	-.09	.17	-.05	.00	.10	.11	.22**	.23**	.15*	.17*	.45**				
15 출생순위	.18*	-.04	.03	-.18*	.08	-.12	-.07	.00	-.04	-.11	.08	.10	.07	-.22**			
16 딸_종교	-.03	-.09	-.04	-.01	.00	-.09	.45**	-.12	-.02	-.06	-.11	-.12	-.01	.02	-.05		
17 동거여부	.09	.02	.01	-.05	.06	-.03	.04	.05	.22**	.03	.11	.10	.01	.07	-.05	-.07	

*p<.05, **p<.01, ***p<.00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부녀관계에 대한 조사로서, 미혼인 딸과의 결속이 아버지의 정서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귀하의 성함을 밝히지 않으며,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질문의 답은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성의있게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 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가족학 연구실
장 혜 연 드림

※ 20세 이상의 미혼 딸이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5. 딸의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남 ___녀 중 ___째 (예-1남1녀중 둘째)

6. 딸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_____

III. 다음은 딸과의 접촉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딸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항목	거의 하지 않음	1년에 1번 이상	1달에 1번 이상	1주에 1번 이상	거의 매일
1. 딸과 집 밖에서 하는 여가생활(예시-쇼핑, 여행, 영화, 외식 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2. 명절, 제사, 생일 등의 특별한 날에 어느 정도 함께 하십니까?					
3. 특별한 일 없이 딸과 밖에서 어느 정도 만나십니까?					
4. 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IV. 다음은 딸과의 애정적인 유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생각하고 느낀 바를 솔직히 생각하신 후, 가장 가까운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와 딸 사이는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2. 귀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주 딸에게 의논하십니까?					
3. 딸이 귀하를 존경한다고 느끼십니까?					
4. 귀하의 개인적 문제를 딸에게 터놓고 의논하십니까?					
5. 딸의 생활에 얼마나 관여를 하십니까?					
6. 딸이 제공하는 정서적인 지지에 만족하십니까?					

V. 다음은 귀하가 딸에게 도움을 준 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의 생활을 잘 생각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딸의 일상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예시-간단한 도움, 집안일, 식사준비 등)을 하였다.					
2. 내가 딸에게 금전적인 도움(용돈 외의 규모가 큰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3. 내가 딸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었다.					
4. 내가 딸에게 인생문제나 가족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VI. 다음은 딸이 귀하에게 도움을 준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의 생활을 잘 생각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V”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딸은 내가 아플 때 도움을 주었다.					
2. 딸이 나의 개인적인 일(예시-집안일, 심부름, 안마해주기, 정보제공 등)을 도와주었다.					
3. 딸이 나의 생활비를 보태주었다.					
4. 딸이 나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었다.					
5. 딸이 관광여행을 보내주었거나 혹은 계획이 있다.					

Ⅶ. 다음은 귀하가 딸에 대해 느끼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V”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딸의 돈 사용방법에 찬성하십니까?					
2. 인생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딸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일상생활에서 귀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딸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Ⅷ. 다음은 귀하의 정서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 1주일 동안 귀하의 상태와 일치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V”표를 해주십시오.

나는 지난 1주일 동안...	전혀 없었다	한두번 그랬다	자주 그랬다	매일 그랬다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2. 입맛이 없었다.				
3. 주변에서 도와주어도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았다.				
4.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5. 무슨 일을 하면서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6. 기분이 우울했다.				
7.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8. 나는 미래가 희망적으로 느껴졌다.				
9.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생각한다.				
10.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지난 1주일 동안...	전혀 없었다	한두번 그랬다	자주 그랬다	매일 그랬다
11. 잠을 시원하게 못 잤다.				
12. 행복한 편이었다.				
13. 평소보다 대화를 적게 하였다.				
14. 외로움을 느꼈다.				
15.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16. 생활이 즐겁다고 느껴졌다.				
17. 울었던 적이 있다.				
18. 슬픔을 느꼈다.				
19.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